

계육산업뉴스

Broiler industry



사단
법인 **한국계육협회** (Korea Broiler Council)

발행인 : 김홍국 편집 : 이재하 · 김태은
(우 137-0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6(남도빌딩 601호)
☎ (02)536-9855 ~ 6 FAX (02)595-6028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 (02)263-3598

제4권 제3호 통권33호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생산조절 · 소비확대 · 위생계육 유통으로 닭고기 소비부진시대 벗어나야

국가경제위기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닭고기 소비시장이 얼어붙어 계육업계의 효율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금융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노동자 임금이 떨어지면 내수 감소와 저축부진으로 산업의 성장력이 떨어져 국가경제가 침체될 것이라고 밝혀 최근 사회의 분위기는 내수부진과 구매력 감퇴로 계속될 것이며 80년대 국민소득 6천불 수준으로 돌아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계육산업도 닭고기 연간 4억여수 공급의 생산기반을 갖추고 종계, 사료, 도계, 도·소매 유통조직이 구축되어 있으나, 닭고기 소비현황은 그렇지 못해 당분간 생산구조 조정이 필요하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관련업계 종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근본적인 생산조절을 위해 종계업계를 중심으로 이해당사자들과 병아리 공급수수를 적정선으로 유지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노력은 시기적절한 행동이며 업계 앞날에 청신호로 보여진다. 자원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작은 업계의 규모로 (세계최대 닭고기 생산업체인 미국 타이슨사의 일주일 생산규모)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신속한 변화가 가능한 계육산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새로운 대통령이 추구하는 '노력하는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나누어 주는 정의(正義)차원에서 생산구조 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계육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로 사회전반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는 현실에 직면해 매월 개최하던 회원사 계열주체 대표자회의를 매주 개최하며,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따라 계육산업의 실질적인 리더로서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왔다. 종계, 병아리, 사료, 계열사육, 위생적인 도계·가공, 도·소매 유통 등 계육산업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첫째, 생산구조 조정 둘째, 시장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 셋째, 수입닭고기 품질경쟁과 소비자 보건을 위한 위생닭고기 생산 등 3가지 과제를 해결과제로 선정하

여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

먼저 **적정 생산사육**을 위해 지난 1월초부터 협회차원에서 계열사육 수수를 감축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GPS, PS 생산량 조절을 위하여 범 종계업계 협의체구성 등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약농가의 어려움이 있으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둘째로 시장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활동**은 계열주체와 사료, 병아리, 자재 납품업자 등 협력업체의 자발적인 협찬으로 연 5억여원의 소비홍보기금을 마련해 라디오 광고, 신문광고, 닭고기 우수성 리플렛 제작 배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닭고기 요리책자 제작, 닭고기 요리경연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한 닭고기 우수성 관련 기사 게재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 특히 대한양계 협회를 비롯한 관련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확대의 목적이 조기에 달성되어 최근 소비부진을 극복해 영양적으로 우수하고 가계에 도움이 되는 닭고기가 널리 소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로 **위생닭고기 생산** 체제 구축을 위하여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공포에 따른 준법외적인 부정도 계육의 유통 근절은 물론 무차료거래 등 부정유통을 불식시키기 위해 농림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로 시정해 나가며 닭고기 KS, ISO인증 등 위생닭고기 유통의 차별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외국산 닭고기가 유통 시장에서 활개치기 전에 가격과 위생적 수준에 손색이 없는 국내 위생닭고기의 브랜드화, 리콜제 도입 등 건전한 위생닭고기 유통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의 소비부진 사태는 위기이며 또한 계육산업의 도약을 위한 기회임을 자각하고 계열주체를 구심점으로 계육산업 관련업계가 대동단결 한다면 IMF통치는 계육산업계의 점프를 위한 점프대가 될 것임이 확실하다.

남 두 희 / 한국계육협회 상무